물가 잡히니 고용 걱정…'청년 일자리' 특단대책 시급

지난달 광주는 '찔끔 반등' 전남은 '하락세 전환'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꺾이고 2%대 안정세 진입
실업자 2만명대 1년전보다 5.4%·87.4%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차츰 안정되고 있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의 이주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장기간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창출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고용률은 지난 4월 하락한 뒤 두 달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전남은 올해 들어 지속되던 상승세가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에 돌입했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전남 역시 2.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등 노력에 따라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 앉았다.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38로 전년 대비 2.7% 올랐고, 전남은 114.68로 2.7% 상승했다.

이처럼 지역 물가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올랐다. 월별로 보면 지난 3월 61.8%로 올해 최대값을 기록한 뒤, 4월 61.5%→5월 61.3%→6월 61.5%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지난달 0.2%p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77만 4000명)보다 1만 3000명 증가했고, 15~64세 고용률은 1.0%p 오른 66.8%를 기록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5.7%) 늘었고, 농림어업(5.1%↑), 광공업(4.9%↑) 등은 올랐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6000명(3.6%↓) 감소했다.

최근 고용률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남은 지난달 올해들어 처음으로 고용률이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남지역 고용률은 66.6%로 전년 동월과 전월에 비해 각각 1.7%p, 0.5%p 감소했다. 전남 지난달 취업자 역시 10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104만 1000명)에 견줘 2.7%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6.4% 감소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5%↓), 광공업(4.3%↓) 등이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7.3%↑)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3.4%↑) 등은 증가했다.

더불어 광주·전남지역 모두 실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광주시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2만명) 대비 5.4% 늘었고, 실업률은 2.6%로 0.1%p 올랐다.

전남은 지난달 실업자가 2만8000명으로 1년전(1만 5000명)보다 87.4% 많았고, 실업률은 1.3%p 오른 2.7%를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D현대삼호 새 안벽 준공…서남권 조선산업 호황 청신호

1102억 투입…연 6척 추가 건조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 크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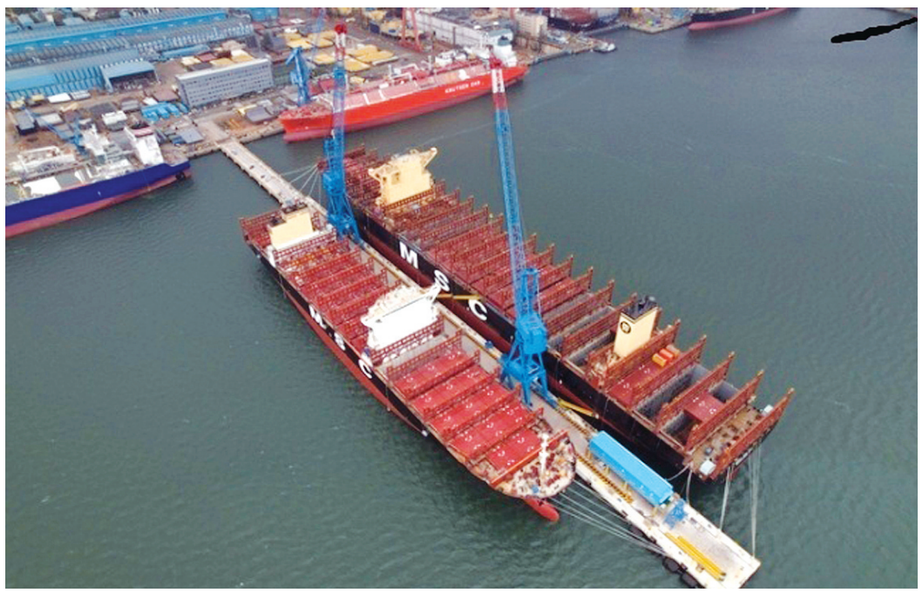
HD현대삼호가 부듯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선박을 계류시킨 뒤 마무리 건조, 의장, 도장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안벽을 추가로 건설했다. 이번 안벽(岸壁) 신설로 연간 최대 6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게 돼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HD현대삼호는 이날 영암에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흥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권오갑 HD현대 회장, 신현대 현대삼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NG운반선 건조에 필요한 '제2돌핀 안벽 준공식'을 개최했다.

안벽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계류시켜 의장·전기배선 등 선박 건조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준공된 안벽은 최대 4척의 선박을 계류시키고 작업이 가능하며 길이 380m에 차량용 도교(146m), 오탁방지막 등을 갖췄다. 지난해 4월 공사에 들어가 6월 완공하는 데 1102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선박의 경우 안벽에서 이뤄지는 공정에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친환경 선박인 LNG 운반선은 7개월 이상 걸린다. 그동안 안벽 부족으로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추가 수주에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 안벽 신설로 연간 최대 6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게 됐다는 HD현대삼호 입장이다.

회사측은 향후 1조 540억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D현대삼호가 1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 준공한 안벽. 선박 2개 사이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 번에 4척의 선박을 계류시킨 뒤 건조 작업이 가능하다. 〈전남도 제공〉

조선업계에서는 그동안 침체됐던 서남권 조선산업이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주한 선박 물량을 제 때 건조하고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경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1100억원이 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벽 건설은 단순한 선박 건조시설 확대를 넘어 서남권 조선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만 3500여명이 근무하는 HD현대삼호는 지난해 매출액 5조 9588억 원(2023년·4조 6464억 원), 영업이익 3017억 원(2023년·17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조선업계 꿈의 영업 이익률 10%를 돌파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 10곳 중 4곳 "이자내면 본전 또는 적자"

기준금리 인하 기업 대응 조사

국내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로 재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째 3.5%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을 조사한 결과, 고금리 기간 경험한 기업경영 애로와 관련해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무 상태 악화'를 겪었다는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실적 악화 상황에서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 응답 기업의 55.2%는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커 흑자'를 예상했지만, 44.8%는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비슷한 수준'(30.2%), '적자'(14.6%)라고 답했다.

결국 44.8%의 기업은 이자 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거나 적자 상태라는 게 대한상의 분석이다.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크거나 영업 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 및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고, 문턱을 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고금리 상황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중기부, 8개 중소벤처 기업 육성 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로 올해 추진할 8개 프로젝트 제안요청서(RFP)를 1차 공고한다.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기술개발(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 설정, 민·관 합동 100억원 규모 대규모 지원, 실패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다.

올해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98개 후보 기술 가운데 1차로 8개 제안요청서를 확정했다.

8개 제안요청서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복원 치료 통합시스템 기술 개발 등 첨단바이오, 항공우주, 첨단로봇, 반도체, AI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광주·전남 중대재해 대응센터 운영

광주경영자총협회가 10일부터 광주·전남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광주·전남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한국경총이 올해 3월 발족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의 지역센터 기능을 하게 된다. 센터는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센터 주요 업무는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위험성 평가 자문 및 개선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가이드 보급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경총은 지역기업 내 안전한 일터 구축과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7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하반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풍이 약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총파업 영향…기아차 광주공장 차량 생산 차질

협력업체 부품 수급 못 받아
1·2공장 2개 라인 가동 중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도 차량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

1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기아차에 모듈 등 전자장치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모비언트와 모트라스 내 금속노조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합해 총 8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부품을 수급받지 못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금속노조 파업으로 차량 생산이 중단된 라인은 광주 1공장과 2공장 두 곳이다. 광주 1공장은 쏘울과 셀토스, 2공장은 쏘울과 스포티지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차량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하루 평균 생산물량인 2100대에서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가동을 멈춘 기아차 광주공장은 내일 오전 중 재가동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10일 하루만 예정된 데다, 이날 전면 파업이 아니었던 터라 일부 시간대에 부품 생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내일(11일) 부품 조달 여부가 생산 재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중 생산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셀토스. 〈광주일보 DB〉

한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도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국내의 유일한 백색가전 생산공장이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에도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계자는 "총파업은 반도체 공장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공장은 이번 주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26.5조원 증가

3년 만에 최대폭…금리하락 영향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대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불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였던 5월(+6조원) 수준이 두 달째 유지됐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고,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67.99 (+0.61)
↓	코스닥	858.55 (-1.87)
↑	금리 (국고채 3년)	3.130 (+0.006)
↑	환율 (USD)	1384.70 (+3.10)